

아시아문화전당 지장물 철거공사 관련 비리조사 결과

□ 지장물 철거 공사 개요

계약명	계약상대자	계약금액	계약기간
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부지 지장물 철거공사	A(주)/지분 60% (주)B/지분 40%	7,726백만 원	'05.10.24 ~ '07.12.31

※ 당초 계약금액은 3,257백만원이었으나, 2차 설계변경 등을 통해 7,726백만 원으로 증액

□ 비리 관련자

- 관련자: 전 ○○○○팀장 갑(2010년 퇴직), A(주) 을, (주)B 병
- 조사경위: 철거공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보도(서울문화투데이 및 광주방송)

□ 조사내용

- 2006.3. 철거공사 설계변경승인 대가로 갑은 시공사에 금품요구(4억원)
- 2006.8~2007.1월 4회에 걸쳐 건설사로부터 6억3천만 원 수수 및 설계변경승인(2회)
 - A(주) 을 4억7천('06.8월, ' 07.1월), (주)B 병 1억6천('06.7~8월)
- 2007.5. 갑 전보발령, 후임과장(정)은 3차 설계변경 미승인하고 준공처리
- 건설사 관계자는 3차 설계변경 미승인을 이유로 갑에게 금품 반환 요구
 - 갑은 (주)B 병에게 1억6천만 원을 반환(2008.3월)하였으나, A(주) 을에게는 4억7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필리핀으로 출국
 - 을은 갑의 아들에게 금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발송 및 방문을 통해 수 차에 걸쳐 금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갑과 연락이 닿지 않자 언론에 제보

을은 감사자의 수차례요구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(유선 상 진술하면 문체부에서 해 줄 수 있는게 무엇이냐고 물은 뒤 연락하지 않고 있으나 호소문을 메시지로 보내옴)갑도 필리핀에서 입국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있으나 관계자 진술((주)B 병, 갑의 아들, 병의 지인 등) 및 수집자료(을 호소문, 을 우편물)상 갑의 금품수수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

□ 조치계획

- 관계법령에 따라 갑 수사의뢰

*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치침 : 공무원이었던 자가 형법, 특가법 등에서 규정하는 금지 및 의무규정 위반 시 고발조치

특가법 및 형사소송법 : 1억 이상 금품수수 시 공소시효 10년(2017.1월 갑 공소시효만료)